



역사, 여성 그리고 나의 일

신영숙/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생** 작은 지구를 상대로, 실천은 자기 지역에서”. ‘역사와 여성’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나로서는 이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아무리 깊이 들여다 본다하더라도 당장 눈앞의 자신의 문제나 가족의 삶, 이웃의 생활을 외면하고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한국사, 여성사, 여성학 등을 강의하였고, 또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교양강좌도 꽤 하였다. 어쩌면 초등학교 시절 역사교사가 된다면 하는 막연한 꿈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선생님들에게 배우면서, “내가 선생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한 때 나도 인문사회과학에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학 강의를 할 때였다. 그들이 참으로 힘겹게 이 수업을 듣기는 하나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하는 염려였던 것이다. 지금도 인문사회과학이 한국 사회에서 홀대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같은 회의는 잠시였고 한국 사회가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느낄수록 내가 공부하고 또 강의하는 ‘역사와 여성’ 문제는 더 중요하고도 더 필요한 의미 있는 주제라고 자신한다. 때문에 어디서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이번 학기에는 여자전문대학에서 ‘한국여성사’ 강의를 하였다. 몇 년 전에도 같은 곳에서 했는데,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실망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 학생들은 달랐다. 야간 수업이라 무척 피곤할 텐데도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듣는 것이었

다. 그들이 얼마나 수업에 열중하고 나를 따랐는지 스승의 날을 앞둔 며칠 전 수업 시간에 내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스승의 날도 아닌 날에 그 같은 일은 정말 처음이었다. 물론 어쩌다 운이 좋으면 스승의 날에 수업이 있어 학생들이 불러주는 ‘스승의 노래’를 들으며 감격해 하기도 한다. 그 순간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요즘은 중산층 여성들의 의식화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며 나의 희망이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호주제, 남아선호, 낙태와 미혼모, 해외 입양 등 가족과 성에서의 남녀 차별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과 불평등, 모성보호 문제, 그리고 청소년 매매춘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매매춘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간의 청산되지 못한 역사 문제 등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남녀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또 한걸음 더 나가 민족 통일을 위해 우리 여성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일반 여성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바람직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이 결코 단순하거나 쉽지 않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 빨리 뭔가 이루려고 조급해 한다. 때문에 요즘은 느린 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도 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게으름 피지 않고 꾸준히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을 때, 그 안에서 우러나는 뿌듯함이 정녕 행복이라고 믿는다. **PPFK**